

《鍼灸大成》<策>篇의 分析을 통한 楊繼洲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이수홍* · 윤종화* · 김갑성*

ABSTRACT

A study on medical thought of Yang Ji Zhou(楊繼洲)
through analysis on 《Zhen Jiu Da Cheng - Ce , 鍼灸大成·策》

Su-Hong, Lee* · Jong-Hwa, Yoon* · Kab-Sung, Kim*

*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oon, Jong Hwa (O, M, D. , Ph. D.)

We have known that 《Zhen Jiu Da Cheng, 鍼灸大成》 had been written by Yang Ji Zhou(楊繼洲) in Ming(明) dynasty. And it had been the only textbook of acupuncture & moxibustion for over 300years. This book is composed of 10 chapters dealing almost all the medical theories of that times. This book is so enormous that it is hard to understand essential ideas of the author. But, Yang Ji Zhou revealed his ideas and medical theories in some parts of this book. This part is named <Ce, 策> that composed of 4 small subjects. These are <Zhu Jia De Shi Ce, 諸家得失策>, <Tou Bu Duo Jiu Ce, 頭不多灸策>, <Xue You Ji Zheng Ce, 穴有奇正策> and <Zhen You Shen Jian Ce, 鍼有深淺策>

In this study, I analyze the relation of 《Zhen Jiu Da Cheng, 鍼灸大成》 and 《Wei Sheng Zhen Jiu Xuan Ji Bi Yao, 衛生鍼灸玄機秘要》 and then I study <Ce, 策> further by comparing with other parts of 《Zhen Jiu Da Cheng, 鍼灸大成》 and other important oriental medical textbooks.

Key Word : Yang Ji Zhou, 《Wei Sheng Zhen Jiu Xuan Ji Bi Yao》, <Ce>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I. 緒 論

《鍼灸大成》은 明代以後 약 三百餘年동안 鍼灸를 배우는 者에게 典範이 되는 書籍으로서, 明 萬曆年間, 楊繼洲에 의해 著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本書는 全體 10卷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明代 以前의 鍼灸理論이 거의 網羅된 綜合鍼灸書이다. 本書의 撰者에 대해서 論難이 많은데¹⁾, 여러 書籍과 序文을 分析해보면²⁾, 趙文炳이 楊繼洲家の 《衛生鍼灸玄機秘要》를 基礎로 靳賢등에게 委任하여 醫學 群書를 모아 《鍼灸大成》으로 選集, 刊行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의 事實에 비추어 보면, 《鍼灸大成》의 著者로 楊繼洲가 合當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왜 後代에 楊繼洲를 《鍼灸大成》의 著者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또, 《鍼灸大成》의 基礎가 되었다는 《衛生鍼灸玄機秘要》의 모습은 어떠한지... 《鍼灸大成》 選集時 어느 정도 聯關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研究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論者는 選集時에 挿入한 것으로 思料되는 《鍼灸大成》 各 篇의 引用句의 分析을 通하여 《衛生鍼灸玄機秘要》와 《鍼灸大成》의 聯關關係를 研究하였다. 아울러 《衛生鍼灸玄機秘要》의 核心 醫學思想이 凝縮된 <策>篇을 多角의 으로 分析해 본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資料 및 研究方法

1. 著者 및 資料

1. 손광락 :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1998, pp. 124-126.
2. 王雪苔 總主編 : 中國鍼灸叢書,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3, pp. 134-14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校釋 : 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 著者

《鍼灸大成》의 著者로 알려진 楊繼洲에 대한 正確한 生沒年代는 알 수 없으나, 대략 明代 嘉靖에서 萬曆³⁾年間(AD1522~1620)의 사람이다⁴⁾. 名은 濟時이며, 繼洲는 字 혹은 號라고 하고⁵⁾, 浙江三衢(지금의 浙江省 衢縣一帶)人이다. 醫學世家의 出身으로 嘉靖年間에 侍醫가 되었으며, 萬曆年間에는 太醫院 御醫를 지내는 등, 4~50餘年間 醫業에 從事하며 名聲을 날렸다⁶⁾.

2) 資料의 構成 및 版本

《鍼灸大成》은 楊繼洲家の 《衛生鍼灸玄機秘要》를 基礎로 하여, 《素問》, 《難經》, 《醫經小學》, 《鍼灸大全(徐氏)》, 《鍼灸聚英(聚英)》, 《鍼灸節要(節要)》 및 《按摩經》 등의 書籍에서 選集, 編撰한 綜合鍼灸醫書이다. 《鍼灸大成》은 總 10卷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卷1 《內經》, 《難經》篇에서는 鍼灸와 關聯된 原文과 註釋이 記載되어 있고, 卷2-卷3에는 歷代 鍼灸家の 著名 歌賦가 30首 記載되어 있으며, 卷4에는 歷代 各家의 主要 補瀉手法과 鍼灸禁忌가 記載되어 있고, 卷5-卷7에는 十二正經과 奇經八脈 및 各 經穴, 奇穴의 部位, 主治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卷8-卷9에는 各 病症에 대한 治療法과 各種 灸法 및 醫案 등이 記載되어 있고, 卷10에는 佚失된 것으로 알려진 《小兒按摩經》이 실려있다⁷⁾.

3. 그 時期의 中國 年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辭源 p. 283.)

年 號	帝 王	西 紀 年 度
正 德(16)	武 宗	1506 - 1521
嘉 靖(45)	世 宗	1522 - 1566
隆 慶(6)	穆 宗	1567 - 1572
萬 曆(48)	神 宗	1573 - 1620
泰 昌(1)	光 宗	1620

4. 紀曉平, 郜樹義 編著 : 明代鍼灸學家楊繼洲,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
5. 王雪苔 總主編: 上揭書, p. 137.
6. 張吉 著 :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1994, p. 151.
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p. 1309.

《鍼灸大成》(以下 '本書'라고도 指稱)은 1601년 刊行된 이래 數十次例에 걸쳐 翻刻되었으며, 대체로 아래의 것들이 重要な 板本이다.

(1) 明本 : 首刊本

- 明 萬曆29年(AD 1601년)에 山西平陽府에 趙文炳에 의해 刊行.

이 本이 本書의 祖本.

(2) 清本

① 李月桂 刊刻本

- 順治⁸⁾丁酉 (AD 1657년)에 平陽知府 李月桂에 의해 重刊된 本

- 康熙⁹⁾庚申 (AD 1680년)에 다시 精密히 校勘後 再版된 本

② 章廷乾隆¹⁰⁾丁巳年(AD 1737년) 本

(3) 人民衛生出版社 1963년 校勘 排印本¹¹⁾

(4) 其他 書籍

①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本¹²⁾

② 大星文化社本 : 國內 刊行本

2. 研究方法

本 研究의 版本은 正確한 起源을 알 수는 없으나, 人民衛生出版社 校勘 排印本을 底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大星文化社本¹³⁾ 및 人民衛生出版社 校勘 排印本을 使用하였다.

- 8. 清 世祖때의 年號로 西紀 1644에서 1661사이에 해당된다.
 - 9. 清 聖祖때의 年號로 西紀 1662에서 1722사이에 해당한다.
 - 10. 清 高宗때의 年號로 西紀 1736에서 1795사이에 해당한다.
 - 11. 楊繼洲 :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1963년 제1판, 1992년 제2판, 11차 印刷.
 - 12. 楊繼洲 : 明代訂正鍼灸大成, 台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 13. 楊繼洲 : 校訂註解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 以下, 上記 出版社本을 本 論文 記載《鍼灸大成》 쪽 수의 基準으로 함.

먼저, 《鍼灸大成》과 《衛生鍼灸玄機秘要》의 聯關關係를 알기 위하여, 各 篇의 引用句에 대한 評價를 通하여, 《衛生鍼灸玄機秘要》가 어느 정도의 比率로 실제 引用되었는지 밝히고자 하였고, 《鍼灸大成》 <策> 篇에 대하여 歷代 註釋家들의 意見을 參照하여 原文의 翻譯, 校勘作業을 통하여 楊繼洲의 醫學思想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가. 《鍼灸大成》과 《衛生鍼灸玄機秘要》의 聯關關係에 대한 研究方法

가정 1). 引用句는 《鍼灸大成》 首刊本 刊行時 挿入한 것으로 본다.

가정 2). 引用句 自體는 錯誤없이 記載된 것으로 본다.

가정 3). 選集者는 引用된 醫書에서 字句修正 없이 그대로만 引用하는 것으로 보아 錯誤가 있을 시, 選集者가 引用된 醫書에서 直接 選集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정 4). 引用醫書 比較時, 現存 出版된 版本에 基準한다.

가정 5). 引用醫書는 現存하는 引用句의 醫書에 準한다.

위와 같은 假定下에 《鍼灸大成校釋》을 中心으로 各種 主要 引用醫書를 比較 檢討하여 아래 基準으로 各 篇을 評價하고, 統計處理하였다.

< 評價基準 >

- 1) 《衛生鍼灸玄機秘要》의 內容으로 疑心되는 것에 대한 端緒.
 - a. 楊家, 楊氏考卷, 楊氏註解등의 楊氏家의 表現.
 - b. 引用部에 獨自의인 註釋을 단것
 - c. 引用部 內容이 要約되었거나, 內容의 變動이 심한 것.
 - d. 引用圖書名이 적히지 않은 것
(단, 篇이 連接하여 있는 경우는 흐름에 따라 省略으로 推定)
 - e. 引用圖書名과 實際 引用篇의 內容 다르면

서, 다른 引用圖書의 내용인 경우.

- f. 篇名이 본래 引用篇과 確然히 달라진 경우.
- g. 內容의 흐름상 疑心가는 部分.

2) 楊繼洲 혹은 楊氏家の 著作.

가. 楊家, 楊氏考卷등의 楊氏家の 表現중에 初刊 以前(1601년)의 書籍에서 內容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나. 醫案

다. 楊家, 楊氏考卷등의 楊氏家の 表現이 없더라도 初刊 以前의 書籍에서 內容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라. 篇名은 主要 引用醫書와 같으나, 內容이 완전히 다르면서, 다른 醫書에는 없는 경우.

- 引用 比較 醫書 -

書名	著者	刊行時期	備考
醫經小學	劉純	1388(洪武 21년)	
神應經	陳會	1425(洪熙 1년)	劉瑾 輯校
鍼灸大全	徐鳳	1439(正統 4년)	
鍼灸聚英	高武	1529(嘉靖 8년)	
鍼灸節要	高武	1537(嘉靖 16년)	鍼灸素難要旨
古今醫統大全	徐春甫	1556(嘉靖 36년)	
醫學入門	李梴	1575(萬曆 3년)	

< 統計方法 >

* 項目 區分

- ① 玄機秘要 推定篇(多少問)
- ② 玄機秘要 斷定篇(確實視)
- ③ 楊繼洲 혹은 楊氏家の 純粹 著作

* P(篇當 쪽수) : 1/4쪽까지 값을 주어 合算
 T(篇當 점수) = P x 4

나. 《鍼灸大成》 <策>篇에 대한 研究方法 ,
 《鍼灸大成》卷三 末尾의 <策>篇은 歷代 鍼灸 關聯書의 長短을 論한 <諸家得失策>, 頭部에는 艾灸施術을 많이 하지 않음을 論한 <頭不多灸策>, 九鍼과 穴의 奇穴 및 正穴을 論한 <穴有奇正

策> 및 刺鍼의 深淺을 論한 <鍼有深淺策>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篇을 校勘, 注釋한 후 分析하였다. 本 論文에서는 校勘, 注釋은 省略하고¹⁴⁾, 分析만을 싣는다.

II. 本 論

1. 《鍼灸大成》과 《衛生鍼灸玄機秘要》와 의 關係

《鍼灸大成》의 著者에 關해서는 앞서, 緒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論難의 여지가 많다. 특히 楊繼洲가 直接 《鍼灸大成》을 著述하지 않았다는 것이 說得力을 얻어 가고 있다¹⁵⁾.

그 첫번째 理由는 趙文炳¹⁶⁾이 쓴 序文에 그가 楊繼洲로부터 疾病을 治療받고 난 後, 楊繼洲家의 '家傳備要'에 다시 《素問》, 《難經》, 《神應經》, 《古今醫統》 ... 《鍼灸聚英》, 《小兒按摩》등 鍼灸와 關連된 醫學 群書를 구해 選集하였다¹⁷⁾고 하였다. 이것은 楊繼洲의 《衛生鍼灸玄機秘要》를 中心으로 趙文炳이 選集했다는 意味가 되므로, 楊繼洲가 《鍼灸大成》을 著作한 것이 아니라 것이다.

두번째 理由로 <鍼道源流>에 의하면, 《玄機秘要》는 '三衢繼洲楊濟時家傳著集'이라 하였고, 《鍼灸大成》은 以上の 醫書(鍼道源流 記載)를 모두 選集하여 하나로 하여 다시 10권으로 나누고, 晉陽 靳賢에 選集校正을 委任하였다¹⁸⁾라고

14. 이수홍 : 《鍼灸大成·四策》의 翻譯과 分析을 통한 楊繼洲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1998.

15. 손광락 : 上記論文, pp. 124-126.

16. 趙文炳의 字는 含章으로, 燕越(지금의 河北 越縣) 地域人이다. 萬曆年間에 山西監察御史를 지냈으며, 1601년에 《銅人明堂之圖》를 製作 刊行하였다.

王深德 總主篇 : 中國鍼灸文獻提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 118-119.

1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刻鍼灸大成序>

되어 있다. 이것은 趙文炳의 語套로 보아, 靳賢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確認할 수는 없지만, 醫學에 어느 정도 造詣가 있어 그에게 校正을 依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鍼灸大成》의 選集者는 楊繼洲가 아니라 靳賢이며 이것의 刊行者가 趙文炳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¹⁹⁾

세번째 理由로 《鍼灸大成》末尾 <益>篇에 '太醫院醫官繼洲楊氏云'이라는 表現이 있고²⁰⁾, 林伯均²¹⁾에 따르면, 靳賢이 《鍼灸大成》을 編集時에 各篇의 題目 밑에 引用書를 表示했는데, 예를 들면 '楊氏', '楊氏註解', '楊氏考卷' 등의 表現이 그것이다. 이런 句節는 모두 靳賢의 語套로 靳賢이 《鍼灸大成》의 選集者라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後代에 《鍼灸大成》의 著者로 楊繼洲를 指目한 것일까? 《四庫全書總目提要》卷105에 따르면²²⁾, '《鍼灸大成》 10卷은 明代 楊繼洲의 編이며, 이 책 앞에 巡按山西御史 趙文炳의 序가 있는데, 그(文炳)가 痿痺의 疾患이 있어 繼洲에게 鍼治療 後 完治되어, 그 家傳《衛生鍼灸玄機秘要》一書를 補充하여 刊行한 後,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쓰고 있다. 한편, 趙文炳의 序에 楊繼洲의 이름은 보이지만, 《鍼灸大成》의 選集者로 判斷되어지는 靳賢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推定컨대, 이것은 靳賢이 《鍼灸大成》選集時에 새로이 자기의 意見을 添加시킨 것이 아니라, 《衛生鍼灸玄機秘要》의 內容에 歷代 醫書의 鍼灸 關聯部分을 選定하여 編集, 校正한 後 刊行한 것이다. 그래서 趙文炳의 立場에서는 지금 靳賢보다는 《衛生鍼灸玄機秘要》와 關聯있는 楊繼洲를 強調한 것이라 思料된다. 《鍼灸大成》이 이런 形式으로 刊行된 것은 趙文炳이 醫學者가 아니라, 行政家로서 '仁人君子(醫者)로 하여금 外위 익혀 醫術에 精通하여, 人民의 壽命을 길게 하고자 한다.'²³⁾ 라는 句節에서

알 수 있듯이 醫學的 見解를 밝힌 책이 아니라, 당시 醫者에 대한 教育用으로 만든 百科事典式 醫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衛生鍼灸玄機秘要》는 《鍼灸大成》의 編纂에 어느 정도 利用되었을까? 불행히도 《衛生鍼灸玄機秘要》가 佚失되어 정확히 比較할 수 없다. 王雪苔²⁴⁾에 따르면, 《鍼灸大成》의 43.9%가 《衛生鍼灸玄機秘要》에서 根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神應經》에서 9.2%, 《鍼灸聚英》에서 9.5%, 《鍼灸大全》에서 5.2% 引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떤 方法으로 統計處理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論者는 前述한 '가. 《鍼灸大成》과 《衛生鍼灸玄機秘要》의 關聯關係에 대한 研究方法'에 따라 各項目別로 目錄標를 만들고 統計處理하였다. 자세한 內容은 紙面關係上 省略하고 目錄標의 例를 하나 提示한 後, 《鍼灸大成》에서 《衛生鍼灸玄機秘要》이 차지하는 比率를 살펴보고자 한다.

例)
<卷3 目錄標>

編名	記載 引用書名	實際 引用圖書名	비고			T
			①	②	③	
五運主病歌	醫經小學	醫經小學	-	-	-	1
六氣爲病歌	-	醫經小學	-	-	-	4
百穴法歌	神應經	神應經	-	-	-	7
十二經脈歌	聚英	鍼灸聚英	-	-	-	14
玉龍歌	楊氏註解	扁鵲神應鍼灸玉龍經		V		29
.
.
鍼內障秘歌	楊氏				V	2
鍼內障要歌	-				V	1
補瀉雪心歌	聚英	?		V		2
行鍼總要歌	-			V	(V)	4
行鍼指要歌	-	鍼灸聚英		V		1
刺法啓玄歌	六言	鍼灸聚英		V		1
鍼法歌	-			V	(V)	2
策	-				V	32

18. 楊繼洲 : 上揭書, p. 6.
19. 王雪苔 總主編 : 上揭書, pp. 137-138, 142-147.
20. 楊繼洲 : 上揭書, p. 532.
21. 王雪苔 總主編 : 上揭書, pp. 142-143.
22. 王雪苔 總主編 : 上揭書, p. 136.

23.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刻鍼灸大成序>.
24. 王雪苔 總主編 : 上揭書, pp. 136-139.

- ① 玄機秘要 推定篇(多少間)
- ② 玄機秘要 斷定편(確實視)
- ③ 楊繼洲 혹은 楊氏家の 純粹 著作.

이런 式으로 《鍼灸大成》 全體를 統計處理한 結果, 다음과 같다.

1. 《鍼灸大成》 총 T 값 : 2006.
2. 楊繼洲의 純粹 著作 T 값 : 231.
-> 11.5%
3. 楊繼洲의 推定 著作 T 값 : 654(2. T 값 포함) -> 32.6%
4. 《衛生鍼灸玄機秘要》 ②+③ T 값 : 1319(654+665) -> 65.7%
5. 《衛生鍼灸玄機秘要》 ①+②+③ T 값 : 1554(1319+235) -> 77.4%

이렇게 《鍼灸大成》중에 《衛生鍼灸玄機秘要》에서 引用된 것으로 疑心되는 部分이 77.4%이었으며, 楊繼洲家の 純粹著作 部分도 11.5%정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록 楊繼洲가 《鍼灸大成》을 直接 選集하지는 않았지만, 後代까지 그를 著者로 알게된 理由가 된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楊繼洲와 《衛生鍼灸玄機秘要》와의 關係인데, 이 冊이 楊繼洲의 純粹 著作이 아님은 分明하다. 먼저, 이 書籍이 構成된 形態를 推定해 보면, 明代에 등장했던 綜合鍼灸書의 構成 形式을 띠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明代 鍼灸醫學者 高武의 《鍼灸節要》, 《鍼灸聚英》과 劉純의 《古今醫統大全》 등의 綜合鍼灸醫書처럼 楊繼洲家の 家傳經驗과 歷代로 重視되던 家賦등을 集大成하여 《衛生鍼灸玄機秘要》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衛生鍼灸玄機秘要》는 趙文炳의 序에 따르면, ‘(楊繼洲) 家傳秘要²⁵⁾’라 하여 楊繼洲가 編纂했는지 疑心케 한다.

그러나, 王國光²⁶⁾ 敍에는 太醫였던 祖父가 纂

한 醫方과 歷代 醫家の 抄錄을 깊이 研究한 후, 손수 짓고 고쳐 天地人 三卷으로 만드니, 書名이 《玄機秘要》라고 하였다. 또, 《鍼灸大成》卷4에 <南豐李氏補瀉>라는 編이 있는데²⁷⁾, 이 編은 《醫學入門》의 내용이며²⁸⁾, 上記 方法으로 研究해 본 바, 《衛生鍼灸玄機秘要》의 內容으로 思料된다. 만약 이 編이 《衛生鍼灸玄機秘要》의 內容이라면, 이 部分은 楊氏家 家傳의 글이 아니며, 楊繼洲가 많은 部分에서 《衛生鍼灸玄機秘要》를 編輯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證據가 된다. 왜냐하면, 《醫學入門》이 萬曆 3년, 1575년에 刊行되었으므로²⁹⁾, 楊氏家에서 이것을 引用할 수 있는 사람은 楊繼洲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家傳內容을 基礎로 했을지라도, 《衛生鍼灸玄機秘要》을 纂한 사람이 楊繼洲임을 提示하는 것이다.

그런데, 《衛生鍼灸玄機秘要》에서 楊繼洲 혹은 楊氏家の 純粹著作은 어떤 것일까? 《鍼灸大成》이라는 尙大한 醫書에서도 11.5%정도로 상당히 많은 分量을 차지하고 있는데, <策>, <勝玉歌>, <神鍼八法>, <三衢楊氏補瀉>, <經絡迎隨設爲問答>, <十二經井穴>, <十二經治症主客原絡>, <督任要穴>, <治症總要>, <灸瘡膏法>, <灸後調攝法> 및 <醫案> 등이 그것이다.

또, 《衛生鍼灸玄機秘要》에서 純粹著作을 除外하고 주로 引用한 書籍은 《鍼灸聚英》, 《鍼灸節要》, 《鍼灸大全》, 《古今醫統大全》, 彭用光의 《體仁彙》, 《醫學入門》등의 醫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高武의 《鍼灸聚英》, 《鍼灸節要》를 重視했는데, <諸家得失策³⁰⁾>에서 《鍼

太保吏部尙書 王國光 獲 澤疏菴王國光是 《明史》卷 112에 따르면, 1577년에 吏部尙書가 되었고, 1579년에 太子太保가 더해졌으며, 1582년에 免職되었다. 이로써 王國光의 敍는 1580년경에 이루어졌다.’

25.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刻鍼灸大成序>.

26. 王雪苔 總主編 : 上揭書, pp. 137.

‘<衛生鍼灸玄機秘要>의 敍를 쓴 賜進士第太子

27. 楊繼洲 : 上揭書, pp. 148-156.

28.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pp. 463-464.

29. 王德深 : 上揭書, pp. 110-111.

30. 楊繼洲 : 上揭書, pp. 118-120.

灸聚英》의 <集用書目³¹⁾>, 그리고 《鍼灸節要》 <書目³²⁾>의 歷代 醫家에 대한 評價를 그대로 答 襲하고 있다. 특히 《素問》, 《難經》, 《金蘭循經》, 《外台秘要》의 書評은 거의 一致하고 있다. 이런 影響아래 《內經》과 《難經》을 重視하였는데³³⁾, 결국, 楊繼洲는 이 《內經》과 《難經》을 宗主로 하여 醫史學으로 淵源關係에 있는 것으로 判斷되는 徐鳳의 《鍼灸大全》 및 高武의 《鍼灸聚英》, 《鍼灸節要》 등을 두루 涉獵한 鍼灸醫學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諸家得失策>에 나타난 楊繼洲의 思想과 朱子學의 關係.

楊繼洲는 <諸家得失策>에서 먼저, 天地 自然의 法은 陰陽이며, 人體도 역시 陰陽일 따름이라 하면서, 이 陰陽이 理致대로 되면, 氣가 和하고, 氣가 和하면, 形도 역시 調和롭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病位에 따라 各各 腠理에 있는 者, 血脈에 있는 者, 腸胃에 있는 者로 나뉘고, 그 治療에 있어 鍼, 灸, 藥을 適在 適所에 使用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適切한 治療規範은 옛 醫書에 依據해야 한다고 하면서, 《素問》, 《難經》을 基礎로 각 醫家의 醫書를 研究하라고 하였다. 또, 무조건 病에 따라 鍼施術하는 것이 아니라, 患者의 形便 즉, 肥滿한가, 瘦瘠한가, 虛한가, 實한가 등을 綿密히 觀察하여 施術하라고 하였다.

한편, <諸家得失策>에서는 朱子學내지 儒學關聯 句節이 多少 나타나는데, 이는 楊繼洲의 基本 哲學思想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楊繼洲의 醫學 世界를 제대로 理解하고자 한다면,

31. 高武 :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8-10.

32. 高武 : 鍼灸節要, 서울, 一社, 1992, pp. 1-2.

33. 楊繼洲 : 上揭書, p. 120.

‘溯而言之, 則惟素(問)難(經)爲最要. 蓋素(問)難(經)者, 醫家之鼻祖, 濟生之心法, 垂之萬世而無弊者也.’

먼저 그의 哲學思想을 살펴볼 必要가 있어 關聯 句節을 分析하였다.

明代 醫學系에는 이 時期 統治者들이 提唱한 朱子學의 影響을 받아, 尊敬衛道하는 復古主義思想이 遊行했으며, 儒學的 素養을 基礎로 醫學을 공부한 儒醫라 自處하는 많은 醫學者들이 많이 나타났다.³⁴⁾ 朱子學의 開祖는 周惇頤이고, 程顥, 程頤兄弟가 이어 發展시킨 후, 朱熹대에 이르러 大成하였다. 朱子學³⁵⁾은 宋代以後 思想系에 큰 影響을 미쳤으며, 明代以後에는 醫學系에도 많은 影響을 끼치게 된다.

다음은 <諸家得失策>에 나타난 朱子學내지 儒學 關聯句節이다.

(1) “惟陰陽得其理則氣和, 氣和則形亦以之和矣³⁶⁾.”

(2) “愚嘗觀之 易曰 : ‘大哉乾元, 萬物資始³⁷⁾, ‘至哉坤元, 萬物資生³⁸⁾.’ 是一元之氣, 流行於天地之間, 一闢一闢, 往來不窮, 行而爲陰陽, 布而爲五行, 流而爲四時, 而萬物由之以化生, 此則天地顯仁藏用之常³⁹⁾, 無庸以贊助爲也⁴⁰⁾.”

34. 홍원식 편저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237.

35. 朱子學의 核心은 먼저, 理氣面에서 ‘一陰一陽之謂道, 道非陰陽也. 所以一陰一陽者道也’라 하여 時間的으로 말하면 理와 氣 사이에 存在의 先後關係는 없으며, 理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氣가 있고, 氣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理가 있으며, 理論的으로 말한다면, 理가 氣보다도 먼저 存在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또, ‘性卽理也. 所謂理性是也’라 하여, 性은 곧 理이니, 天下 理致의 그 나오는 根源을 찾는다면, 善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36. 楊繼洲 : 上揭書, p. 119.

37. 金赫濟 校閱 :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87, p. 4. “象曰 大哉라 乾元이여, 萬物이 資始하니 乃統天하니라.”

38. 金赫濟 : 上揭書, p. 22.

“象曰 至哉라 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니 乃順承天하니라.”

39. 金赫濟 : 上揭書, p. 363.

“顯諸仁, 藏諸用하여 鼓萬物而 … 盛德大業이 至矣

(3) “故易曰：‘后以裁成天地之道，輔相天地之宜，以左右民⁴¹⁾’此其所以人無夭札，物無瘥厲，而之以收立命之功矣⁴²⁾。”

(4) “然而吾人同得天地之理以爲理，同得天地之氣以爲氣⁴³⁾，”

(5) “孟子曰：‘離婁之明，不以規矩，不能成方圓，師曠之聰，不以六律，不能正五音⁴⁴⁾’”

(6) “先儒曰：‘吾之心正，則天地之心亦正，吾之氣順，則天地之氣亦順。’⁴⁵⁾”

이중에 (1)“惟陰陽得其理則氣和，氣和則形亦以之和矣。”(오직陰陽이 그理를 얻은 즉氣가하고,氣가하고한즉形이和한다)。이것은朱子學의理氣論⁴⁶⁾과상당部分一致한다。朱子學의理氣論은첫째,理와氣의明確한區分이고,둘째,理를氣보다先行하는것으로보고있다。또,陰陽(事物)이바로道혹은리가아니라,陰陽되는所以(가답)가道또는理라는것이다。그런面에서‘陰陽得其理(陰陽이理를얻는다)’라는句節은陰陽과리가同一視되는것이아니라,明白하게理(道)가陰陽을制御統制할수있는것으로表現하고있다。또‘得其理則氣和(그理를얻은즉,氣가하고한다)’라는句節은理와氣를區分하고,

哉라.”

40. 楊繼洲：上揭書，p. 119.

41. 金赫濟：上揭書，pp. 79-80.

“象曰 天地交泰니 后이하야 財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야 以左右民하나니라.”

42. 楊繼洲：上揭書，p. 119.

43. 楊繼洲：上揭書，p. 119.

44. 楊繼洲：上揭書，pp. 119-120.

金赫濟 校閱：原本孟子，서울，明文堂，1987，pp. 37-38.

“孟子曰：‘離婁之明과 公輸子之巧로도 不以規矩면，不能成方圓하고, 師曠之聰으로도, 不以六律이면, 不能正五音하고, 堯舜之道라도 不以仁政이면 不能平天下리라.’”

45. 楊繼洲：上揭書，p. 120.

金赫濟 校閱：原本大學中庸，서울，明文堂，1987，(大學) p. 11.

46. 劉明鍾 著：宋明哲學，서울，螢雪出版社，1994，p.

理가氣보다先行한다는것을잘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4) “吾人同得天地之理以爲理，同得天地之氣以爲氣。”이句節은‘사람이天地의理致를똑같이얻어서理致로삼고,天地의氣를똑같이얻어서氣로삼는다.’라고解釋하여韓醫學의人體觀인天人相應⁴⁷⁾으로理解하여할수있다。《靈樞》<邪客篇>에“天圓地方，人頭圓足方而應之…歲有十二月人有十二節地有四時不生草人有無子，此人與天地相應也。”라고記述되어있고，《素問》<陰陽應象大論>에“故治不法天之紀，不用地之理則災害至矣”라하여하늘의紀와땅의理를잘따를것을力說하고있다。그리고，《素問》<著至教論>에서“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라하여,天文,地理,人事를알것을強調하고있다.

또이句節은朱子學의‘性即理’라는性的思想과關聯하여理解할수도있는데,朱子學의觀點에서는人體가成立될때理的인面과氣的인面이同時에關與하는데,이理的인面이本然의實體를形成하는것으로보고있다.⁴⁸⁾이것을사람에대해말한것이곧性이며,또한氣는이理에附隨되는것으로보았다。윗句節은天地自然의理와氣를區分하고,人體가이들을제대로받아들일것을強調하는것으로解釋할수있다.

이句節은비록큰意味에서는天地의理氣를얻어야한다는天人相應의思考이지만,朱子學의影響으로理와氣를明確하게區分한表現이라고볼수있다。이것이韓醫學의人體觀의表現인지,朱子學의表現인지斷定할수는없지만,楊繼洲가朱子學의影響을받았다고보는見解의한證據는될수있을것이다.

또,(6)“先儒曰：‘吾之心正，則天地之心亦正，吾之氣順，則天地之氣亦順。’”은中庸第1章『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이라는句節에대한

40. 楊繼洲：上揭書，p. 119.

41. 金赫濟：上揭書，pp. 79-80.

“象曰 天地交泰니 后이하야 財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야 以左右民하나니라.”

42. 楊繼洲：上揭書，p. 119.

朱子註의 一部로서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대저, 天地萬物은 나로부터 함으로, 내 마음이 바른 즉 天地의 中心이 또한 발라지고, 내 氣運이 順調로운 즉 天地自然의 氣 또한 順調롭게 된다.)라 했으니⁴⁹⁾, 여기에서 先儒는 朱子를 意味하며, 이는 疑心할 바 없이 朱子學과의 密接한 聯關關係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句節은 대체로, 明道(程顥)가 말한 바 있는 것처럼, “마음이 萬理의 理며, 내 마음만 밝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땅함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라 하는 것과 關聯性이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周易이나 孟子 등에서 引用하는 句節들이 相當數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楊繼洲의 基本 哲學思想이 朱子學의 核心 思想(理氣論, 性論)과 상당한 聯關을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王國光이 쓴 <衛生鍼灸玄機秘要⁵⁰⁾>에 따르면, ‘余素知楊子去儒業業醫, 今果能以醫道侔相功, 益信儒道之通于醫也.’(내가 익히 알기로, 楊先生(楊繼洲)은 儒學者의 길을 떠나 醫業을 行했는데, 지금에 좋은 醫道의 成果를 이루었으니, (이는) 信實된 儒學의 道가 醫에도 通한 것이라.)라는 句節이 있는데, 이런 表現들은 그가 당시 醫學系의 한 特徵 部類인 儒醫로 儒學 특히 朱子學에 대한 該博한 知識을 갖춘 醫師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頭不多灸策>과 歷代 主要鍼灸書에서의 關聯部分 比較理解

<頭不多灸策>에서는 會, 經 및 穴의 概念을 提示하면서, 穴을 알지 못하면 繁盛하지 못하고, 會를 알지 못하면 散漫하여 要旨을 잃는다하면서, 會를 觀察하고 經을 살펴 穴을 取하라하였다. 또 艾灸를 施術함에 各 疾患마다 取해야할 代表 穴들을 提示하고 있는데, 風病에는 風池, 百會를

취하고, 虛癆에는 膏肓, 百勞를 취하고, 氣病에는 氣海를 취하고, 水病에는 水分을 취하고, 腹部病에는 三里를 취하고, 頭目病에는 合谷을 취하고, 腰腿病에는 環跳, 風市를 취하고, 手臂病에는 肩髃, 曲池를 취하여 艾灸治療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頭部에는 艾灸施術을 過度하게 하지 말 것을 強調하면서, 만약, 頭部에 艾灸施術을 過度히 하면, 머리가 어지럽게 되며 皮膚가 얇은 곳이라 傷하기 쉽다고 하였다. 末尾에 醫師의 마음가짐에 대해 論하고 있는 데, 醫師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養生하며, 患者의 病勢 흐름을 잘 辨別하여 醫師의 마음과 하나로 連結되면 病理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 經을 살펴 穴을 취하고 氣를 따라 手技하면 마음먹은 대로 治療된다고 하였다.

東洋醫學(韓醫學)이 成立된 이래로 艾灸施術은 많은 發展을 거듭해 왔다. 艾灸는 <素問><異法方宜論⁵¹⁾>에 따르면, “北方에서 寒冷한 氣가 흐르고, 그곳의 사람들이 遊牧의인 生活을 하고, 乳製品飲食을 날로 먹어, 寒이 쌓여 萬病이 생겼으니, 治療는 宜當 灸炳로 해야한다.”라 하여, 이 艾灸 施術이 北方에서 由來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靈樞><官能>이나 <經水>에 따르면, 이 艾灸施術은 陰陽이 具虛하거나, 經脈이 陷下할 때 使用 可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이를 過度히 하면 惡火를 얻어 骨이 마르고 脈이 澁해진다⁵²⁾고 했다.

한편, 楊繼洲에 따르면, ‘頭部에는 艾灸施術을 많이 하지 말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 理由는 ‘머리는 모든 陽의 集合處이며 百脈의 으뜸이니 ... 病理機轉을 잘 살피지 않고, 여기에 艾灸施術을 많이 하면, 頭目이 도는 듯 어지럽고, 視力이 不明하고 ... 그 部位를 잘 살피지 않고 艾灸施術하여, 氣血이 막히어 끊어지고, 肌肉이 單薄한 곳

49. 김혁제 校閱 : 原本大學中庸, 서울, 명문당, 1987, (中庸) p. 11.

50.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 上揭書, <衛生鍼灸玄機秘要> 紋.

51. 欽定四庫全書 醫家類(1) -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p. 48-49.

52. 欽定四庫全書 醫家類(1) : [靈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349, 412.

	禁灸穴	頭部禁灸穴	頭部禁灸穴比率
鍼灸甲乙經	頭維,承光,腦戶,風府,瘡門,下關,耳門,耳中,人迎,絲竹空,承泣,脊中,白環俞,乳中,石門,淵液,經渠,鳩尾,陽關,天府,陰市,伏兔,地五會,瘦脈,	頭維,承光,腦戶,風府,下關,耳中,耳門,絲竹空,承泣,瘦脈	10/24 ->42%
外臺秘要	頭維,下關,承光,腦戶,氣衝,脊中,伏兔,乳中,地五會,陰市,泉腑,天府,瘡門,經渠,白環俞,鳩尾,迎香,石門,絲竹空,承泣,耳門,人迎,瘦脈,少商,尺澤,陰市,陽關,小海,少海,精明,關衝	頭維,下關,承光,腦戶,迎香,絲竹空,承泣,耳門,瘦脈,精明,	10/31 ->33%
鍼灸藥	承光,瘡門,風府,天柱,素膠,臨泣,精明,攢竹,迎香,和膠,觀膠,絲竹空,頭維,下關,脊中,肩貞,心俞,白環俞,天隔,人迎,乳中,周榮,淵液,鳩尾,腹哀,少商,魚際,經渠,天府,中冲,陽關,陽池,地五會,臑白,漏谷,陰陵泉,伏兔,脾關,委中,殷門,申脈,承扶	承光,風府,素膠,臨泣,攢竹,迎香,和膠,觀膠,絲竹空,頭維,下關	12/42 ->29%
鍼灸大成(考正穴法)	天府,經渠,魚際,少商,禾膠,迎香,頭維,下關,承泣,乳中,伏兔,陰市,漏谷,少海,精明,贊竹,眉衝,承光,大杼,心俞,白環俞,委中,勞宮,陽池,天隔,絲竹空,耳門,淵液,地五會,石門,鳩尾,脊中,瘡門,風府,腦戶,上星,素膠	禾膠,迎香,頭維,下關,承泣,精明,贊竹,眉衝,承光,絲竹空,耳門,風府,腦戶,上星,素膠	15/37 ->41%
鍼灸大成(藥灸穴歌)	啞門,風府,天柱,承光,臨泣,頭維,絲竹空,攢竹,精明,素膠,禾膠,迎香,顛膠,下關,人迎,天隔,天府,周榮,淵液,乳中,鳩尾,腹哀,肩貞,陽池,中衝,少商,魚際,經渠,地五會,陽關,脊中,臑白,漏谷,陰陵泉,條口,犢鼻,陰市,伏兔,脾關,申脈,委中,殷門,承扶,白環,心俞	風府,承光,臨泣,頭維,絲竹空,攢竹,精明,素膠,禾膠,迎香,顛膠,下關	12/45 ->27%

은 꺼리기...53)' 때문이라는 것이다.

艾灸施術은 火熱法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陽, 혹은 陽化하기 쉬운 곳은 꺼린다는 것이며, 皮膚組織 또한 單薄하면 傷處받기 쉬우므로 下腿처럼 肌肉이 豊富한 곳에는 艾灸施術을 많이 하는 반면, 頭部에는 艾灸施術을 적게 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는 《鍼灸大成》以前에도 明確히 主張되고 있는데, 《備急千金要方》<灸例>에 따르면 '頭는 身體의 根源이고, 首는 사람의 神靈함이 깃든 곳이라, 氣口의 精微로움과 밝음을 따르며, 三百六十五絡이 위로 머리에 올라가므로, 頭는 모든 陽의 集合處이니, 頭病은 宜當 잘 살펴, 穴에 艾灸施術時 昏亂케 하지 말 것이니, 艾灸을 過度히 施術하여 神을 傷하여 迷惑하면 陽精이 玄熟하고 陰魄으로 다시 卒케하니...54)'라 하여 이러한 主張들이 歷代로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全體 正經穴에서 어떤 穴들이 禁灸穴이고, 頭面部 禁灸穴은 어떤 穴들이며, 各 穴에 艾灸을 施術하였을 때 나타나는 副作用을 文獻을 통해 알아보자. 다음은 歷代 醫書의 禁灸穴 目錄이다.

《鍼灸甲乙經》<禁灸55> : 總 24穴

《外臺秘要》<三十二穴并忌不宜灸56> : 總

53. 楊繼洲 : 上揭書, p. 122.

'首爲諸陽之會, 百脈之宗, 人之受病固多, 而吾之施灸宜別, 若不察其機而多灸之, ... 頭目眩暈, 遠視不明... 不審其地而并灸之, 其能免夫氣血滯絕, 肌肉單薄之忌'

54. 欽定四庫全書 醫家類(3) -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p. 735-897.

'...頭者身之元, 首人神之所, 法氣口精明, 三百六十五絡皆上歸於頭, 頭者諸陽之會也, 故頭病必宜審之, 灸其穴不得亂, 灸過多傷神惑使陽精玄熟, 令陰魄再卒...'

55. 欽定四庫全書 醫家類(1) - 皇甫謐 : [鍼灸甲乙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 603.

56. 欽定四庫全書 醫家類(5) - 王彥 : [外臺秘要] 서

31穴

《鍼灸聚英》〈禁灸穴⁵⁷⁾〉 : 總 42穴

《鍼灸大成》

- 禁灸穴歌⁵⁸⁾ : 總 45穴

- 各 經絡 經穴⁵⁹⁾ : 總 37穴

; 各 經絡 考正穴法篇에서 確認한 禁灸穴

以上에서 歷代 醫書에서의 禁灸穴을 살펴보았다. 이 중 《鍼灸大成》의 <考正穴法>篇의 禁灸穴과 <禁灸穴歌>篇의 禁灸穴이 조금 다른데, 그 理由는 <考正穴法>篇에는 歷代 醫書에 나타나 있는 '禁灸'라는 表現을 中心으로 選定한 經穴이기 때문이다. <禁灸穴歌>篇중에 上記 票<考正穴法>篇에 없는 禁灸穴을 살펴보면, <考正穴法>篇에 '禁灸'라는 文句는 없어도 艾灸施術을 하라는 文句도 없어 결과적으로 '禁灸'의 意味를 담고 있

지만, 論者는 일단 이런 經穴를 除外시키고 統計 處理하였다. 《鍼灸大成》 <考正穴法>篇의 禁灸穴을 中心으로 頭面部의 禁灸穴을 定理해 보고, 艾灸施術을 하였을 때의 副作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頭部 禁灸穴]

「禾膠, 迎香, 頭維, 下關, 承泣, 睛明, 贊竹, 眉衝, 承光, 絲竹空, 耳門, 風府, 腦戶, 上星, 素膠」(以上 15穴)

- 承泣 : '灸後令人 目下大如拳 息肉日加桃⁶⁰⁾'

- 絲竹空 : '灸之不幸 使人目小及盲⁶¹⁾'

- 風府 : '令人失音⁶²⁾'

- 腦戶 : '令人瘧⁶³⁾'

울, 大星文化社, 1980, pp. 569.

57. 高武 著 : 鍼灸聚英, 1961, p.247.

58. 楊繼洲 : 上揭書, p. 183.

59. 楊繼洲 :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250-362.

60. 楊繼洲 : 上揭書, p. 264.

61. 楊繼洲 : 上揭書, p. 328.

62. 楊繼洲 : 上揭書, p. 360.

63. 楊繼洲 : 上揭書, p. 360.

- 上星 : '令人目不明⁶⁴⁾'

《鍼灸大成》<考正穴法>篇에 나타나는 禁灸穴은 모두 37穴이고 이중 頭部의 禁灸穴은 15穴로 頭部禁灸穴의 比率이 41%이었으며, 歷代 醫書에서도 頭部禁灸穴의 比率이 27~42%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頭部의 禁灸穴중 灸施術을 하였을 때의 副作用은 瘰肉이나 盲, 瘧, 目不明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鍼灸大成》<頭不多灸策>의 '여기에 灸施術을 많이 하면 頭目이 도는 듯 어지럽고 視力이 不明하고...'라는 部分과 一脈 相通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鍼灸大成》<頭不多灸策> '氣血滯絕, 肌肉單薄之忌'는 頭部의 情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全體의 禁灸穴에 대한 根據도 提示한다고 볼 수 있다. 즉, 乳中, 少海, 委中, 勞宮, 天牖, 淵液등의 穴들이 모두 薄弱한 皮膚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歷代 醫書의 禁灸穴을 알아보았고, 頭部에 灸施術을 많이 하지 않는 根據도 살펴보았다. 《鍼灸大成》<頭不多灸策>은 頭部에 艾灸施術을 많이 하지 않는 根據를 명확히 提示할뿐만 아니라 全體穴에서의 禁灸穴에 대한 根據도 一部 提示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穴有奇正策>에 나타난 奇穴에 관한 研究

楊繼洲는 <穴有奇正策>에서 먼저, 法, 數 및 穴에 대해 論하고 있다. 法은 鍼灸가 서는 規則(鍼灸所立之規)이라 하였으며, 數란 法을 紀綱으로 하여 運用하는 것(所以紀其法, 而運用...)이요. 穴이란 鍼灸治療의 決定된 方法이라 하였으며, 또 穴에는 奇穴과 正穴이 있음을 論하고 있다. 그래서 醫業을 잘 하는 이는 法에 根據하여 數를 細密히 算定하고 正穴과 奇穴에 두루 通하여 精誠을 쌓고, 智巧를 익힌 者라 하였다.

또, 九鍼 즉 鑿鍼, 圓鍼, 鍤鍼, 鋒鍼, 金非鍼, 圓

64. 楊繼洲 : 上揭書, p. 361.

利鍼, 毫鍼, 長鍼, 大鍼의 適應症과 鍼의 形態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艾灸施術에 관해서도 論하고 있는데, 前篇의 <頭不多灸策>에서는 頭部를 中心으로 艾灸施術의 過用에 대한 不當性を 論했다면, 本篇에서는 皮膚, 肌肉의 厚薄에 따라 艾灸施術의 多少를 論하고 있다. 즉 少商, 承漿, 少衝과 같이 肌肉이 單薄한 穴에는 艾灸施術을 적게 하고, 膏肓, 中脘, 三里와 같은 經穴에는 艾灸施術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楊繼洲는 法數奇正에 입각하여 治療할 것을 記述하면서도, 이것만이 全部가 아님을 逆說의으로 主張하고 있다. 즉 이 法數奇正에 先行하여 聖人の 마음을 重視하고 있다. 一心의 神靈함을 잘 運營하면 法이나 數가 아니고서도, 奇나 正이 아니고서도 역시 治療가 可能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 篇에서 正穴外에 奇穴도 重視하여, 內迎香, 鼻準, 耳尖등의 穴을 列舉하였다. 奇穴 즉 經外奇穴은 十二正經과 奇經八脈에 所屬된 361正穴을 除外한 經驗的인 特效穴 또는 經絡上, 經絡과 經絡間, 혹은 經絡에서 遠位에 位置하고 古典에 記載된 穴을 말한다.⁶⁵⁾ 論者는 楊繼洲가 奇穴에 대해 어떻게 體系를 세웠는지, <穴有奇正策>과 <鍼灸大成>중 <經外奇穴⁶⁶⁾>篇을 中心으로 歷代醫書와 比較 理解하고자 한다.

奇穴은 正穴과 더불어 <內經>때부터 조금씩 나타나, <備急千金要方>, <奇效良方⁶⁷⁾>등에 많이 記載되어 있으며, <鍼灸大成>에서는 <經外奇穴>篇을 따로 두어 記述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素問><刺癩論>을 中心으로 直接的인 穴名보다는 位置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兩額兩眉間(印堂)⁶⁸⁾, '十指間(八邪)⁶⁹⁾등이 그것이다. 後代

로 내려오면서, 그 數는 점차 增加되었으며, <備急千金要方>에서도 穴名을 바로 쓰지 않고 部位를 記述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 '大骨孔'은 '大指節橫文'⁷⁰⁾으로 記載되어 있으며, '內迎香'은 '在鼻孔中'⁷¹⁾으로 記載되어 있다. <鍼灸大成>의 奇穴에 관한 內容은 印堂등 몇 穴⁷²⁾을 除外하고는 거의 대부분 <奇效良方>의 內容을 따르고 있다. <穴有奇正策>에서 "내가 일찍이 <圖經>을 考察해 보았는데, (奇穴의 數가) 七十九穴임을 알았다."⁷³⁾라고 하였는데, 이 <圖經>이란 書籍이 정확히 어떤 冊인지 알 수 없다. <圖經>이라는 書名과 <奇效良方>이라는 書名은 전혀 같지 않다. 그러나, <經外奇穴>篇 內容이 <奇效良方>과 매우 類似한 것으로 보아 <圖經>이 <奇效良方>의 誤記이거나, 서로 다른 책이라면, <圖經>의 奇穴에 관한 內容은 <奇效良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鍼灸大成><穴有奇正策>에는 全身의 21穴의 奇穴名이 記載되어 있고, <鍼灸大成><經外奇穴>篇에는 33穴의 奇穴名이 羅列되어 있으며, 각 奇穴마다 穴位, 適應症, 施術方法 등이 詳細히 記錄되어 있다. 이 중에는 四關등 正穴도 몇몇⁷⁴⁾ 包含되어 있다. 또 <經外奇穴>에 記載한

65. 全國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 上揭書, p. 763.
66. 楊繼洲 : 上揭書, pp. 381-384.
67. 方賢 : 奇效良方, 흥공, 商務印書館, 1977.
68. 王德深 主編 : 中國鍼灸穴位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4, pp. 1816-1817.
"古代指額部兩眉之間爲'闕', 星相家稱印堂, 穴在其上, 故名."

69. 王德深 主編 : 上揭書, pp. 1835-1836.
"八邪八穴, 手十指縫中是."
70. 王德深 主編 : 上揭書, p. 1833.
"大指節橫紋", "目卒生醫"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109.
"目卒生醫, 灸大指節橫文三壯..."
71. 王德深 主編 : 上揭書, pp. 1820-1821.
"在鼻孔中大", "治中惡目"
孫思邈 : 上揭書, p. 445.
治中惡方: "蔥心黃刺鼻孔中血出愈"
72. 楊繼洲 : 上揭書, p. 384.
王德深 主編 : 上揭書 pp. 1816-1875.
"印堂을 비롯하여, 小骨孔, 子宮, 龍玄, 高骨 및 蘭門등이다."
73. 楊繼洲 : 上揭書, p. 124.
"... 吾嘗考之圖經, 而知其七十有九焉."
74. 楊繼洲 : 上揭書, pp. 383-384.

奇穴 以外에, 《太平聖惠方》에 보이는 '四神聰⁷⁵⁾'이나, 《備急千金要方》에 보이는 夾脊⁷⁶⁾, 膝眼⁷⁷⁾ 등은 현대에도 比較的 많이 愛用되는 奇穴임에도 《鍼灸大成》에 記載되지 않은 것은, 이 穴들이 《奇效良方》에 記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假定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奇效良方》<鍼灸門-奇穴⁷⁸⁾>篇을 살펴보면, 25개의 奇穴名이 記載되어 있고, 上記의 奇穴은 言及이 없다. 또한, 各 穴의 個數를 合한 總合은 80穴로 《圖經》 七十九穴과 1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奇效良方》에 記載되어 있으면서, 《鍼灸大成》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奇穴名은 四開⁷⁹⁾ 穴 밖에 없으며, 《鍼灸大成》에 여기에 對應하는 穴로 四關⁸⁰⁾이 있다. 이는 《鍼灸大成》<經外奇穴>篇과 《奇效良方》과의 相關關係를 더 確實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穴有奇正策>에서는 奇穴과 正穴의 關係를 "穴者는 正穴外에도 널리 通하게 하여, 病症을 治療하게 한다.⁸¹⁾"라 하여 鍼治療의 多變化를 苛하

四關(合谷, 太衝), 鬼眼(少商, 隱白, 혹은 隱白), 百蟲窠(血海)을 말한다.

75. 王德深 主編: 上揭書, p. 1815.

"二. 部位: '... 2, 在百會四面, 各相去同身寸一寸.'

三. 主治病證: '... 2, 理頭風目眩, 狂亂, 風癩.'

76. 王德深 主編: 上揭書, pp. 1826-1827.

"二. 部位: '... 2, 令病者合面臥, 伸兩手着身, 以繩橫牽兩肘尖, 當脊間繩下兩方相去各一寸半所.'

三. 主治病證: '... 2, 癱亂轉筋.'

77. 王德深 主編: 上揭書, pp. 1839-1840.

"二. 部位: '... 2, 在膝頭骨下兩方陷者宛宛中是.'

三. 主治病證: '... 2, 凡脚氣初得, 脚弱.'

78. 方賢: 上揭書, pp. 1105-1107.

79. 方賢: 上揭書, p. 1107.

"四開四穴, 合谷並行間, 是穴手足共四穴"

80. 楊繼洲: 上揭書, p. 384.

"四關, 四穴, 則兩合谷, 兩太衝穴是也."

81. 楊繼洲: 上揭書, p. 124.

"... 奇穴者, 則又旁通於正穴之外, 而隨時療症者

였으며, 治療의 大綱을 '法數奇正'이라 하여, 奇穴도 正穴과 더불어 對等한 位置에 있음을 標榜하였다. 그리고 楊繼洲는, 나아가 지금까지 主要醫書에서는 斷片的으로 取扱했던, 奇穴들만을 묶어, <經外奇穴>篇을 記述하였다. 이 또한 《奇效良方》에 영향받은 것으로 해석해 좋을 것이다.

5. <鍼有深淺策>에서 刺鍼의 深淺에 대한 研究

楊繼洲는 <鍼有深淺策>에서 疾病의 寒熱 先後에 關係 論하고, 그 治療에 있어서도 先後를 論하고 있다. 그래서, 先寒後熱者는 陽隱於陰이니, 너무 陰에 置重하면, 熱이 熾盛해질 것이요, 先熱後寒者는 陰隱於陽이니, 너무 陽에 置重하면, 寒이 熾盛해진다고 하였다. 先寒後熱者는 陽中隱陰法을 施行하고, 先熱後寒者는 陰中隱陽法을 施行하였다.

또 病의 豫防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는데, 病은 元陽이 傷하고 正氣가 亡하여 寒毒의 氣가 虛를 타고 蔭襲, 浸透하는 것이라서 嗜慾을 遏게 하고 天機를 깊게 하면, 太極이 자연히 體를 세워 寒熱의 邪氣가 浸透하려해도 결국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병든 後보다 병들기 前에 豫防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鍼有深淺策>에서 強調한 刺鍼方法은 陽中隱陰法과 陰中隱陽法이다. 이 鍼刺法은 上記에 記載된 바와 같이, 각각 先寒後熱과 先熱後寒에 適用된다. 《內經》以來로 刺鍼方法은 發展을 거듭한다. 金元代의 寶漢卿⁸²⁾은 《素問》<離合眞邪論>을 發展시켜 刺鍼 十四法⁸³⁾을 만들었으며, 明代

也."

8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上揭書, p. 1110.

"金元時代의 醫家 寶漢卿은 《鍼經指南》을 著述했는데 그 중 <標幽賦>, <流洲八法>등이 包含되어있다."

8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上揭書, pp. 1110-1111.

《鍼灸大全》中の <金鍼部>에는 基本的인 補瀉와 行氣技法을 綜合的으로 運用한 綜合技法 14種⁸⁴⁾이 記載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綜合技法의 基本이 되는 補瀉法은 徐疾, 提插, 捻轉, 鍼向(迎隨), 呼吸, 開闔, 九六數, 子母穴, 十二時등이다. 陽中隱陰法과 陰中隱陽法은 이 基本 補瀉法중, 徐疾, 提插, 九六數의 方法이 應用되었다. 이중 提插法은 刺鍼部位의 深淺과 깊은 關係가 있다. 深淺 提插法은 秦漢時期부터 強調된 것으로 《靈樞》<官鍼>과 《靈樞》<終始>篇등에서 볼 수 있으며, 以後 이를 運用하여 上記의 深淺二分과 天人地三分으로 區分된 手技補瀉法이 나타났다.⁸⁵⁾ 《難經》<三十難>에 따르면, “五臟六腑가 氣를 받음에 淸한 것은 營이 되고, 濁한 것은 衛가 되니, 營은 脈內을 行하고, 衛는 脈外를 行한다.⁸⁶⁾”하였다. 또한, 《難經》<七十六難>에 따르면, “(補瀉의 方法에서) 補해야 할 때는 衛로부터 氣를 取하고, 瀉할 때는 營으로부터 氣를 置한다.”⁸⁷⁾고 하였다. 《鍼灸大成》<經絡迎隨設爲問答>篇에 따르면, “衛氣는 淸氣니, 表를 主管하고, 營氣는 精氣이니 裏를 主管한다. … 그런 즉, 營衛는 中, 外를 主管하니 어찌 크지 않겠으며 補瀉를 구하지 않겠는가?”⁸⁸⁾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營은 陰이 되고, 衛는 陽이 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補는 先淺後深하여 衛氣를 下하고, 瀉는 先深後淺하여 營氣를 引하여 營衛를 通行시킨다.”⁸⁹⁾했다. 《鍼灸大全⁹⁰⁾》<粹岐風谷飛經撮要金鍼賦>나, 《鍼灸大成⁹¹⁾》<金鍼賦>에는 ‘陽中隱陰法은 先寒後熱症에 사용하니, 알 게 刺鍼한 후 깊게 刺鍼하니 九六之法으로서 先補後瀉이며, 陰中隱陽法은 先熱後寒症에 사용하니 깊게 刺鍼한 후 알 게 刺鍼하니 六九之方으로서 先瀉後補이다.’라고 簡略하게 記述되어 있어 精確히 淺部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深部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알 수 없다.

한편, 《鍼灸大成》<鍼有深淺策⁹²⁾>과 <三衢楊氏補瀉⁹³⁾>에서는 深淺에 대해 더 具體的으로 表現하고 있는데, 즉 陽中隱陰法은 먼저 五分을 刺入하고, 나중에 一寸을 刺入한다고 하였고, 陰中隱陽法에서는 먼저 一寸을 刺入한 후 五分으로 瀉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五分은 淺으로 衛氣 즉 陽을 말하고, 一寸은 深으로 營氣 즉 陰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一寸이 營部位이고, 五分이 陽部位라는 假定이 成立될 경우, 楊繼洲는 從來의 抽象的인

“刺鍼十四法은 動, 退, 搓, 進, 盤, 搖, 彈, 捻, 循, 捫, 攝, 按, 爪, 切등이 그것이다.”

84. 全韓國醫科大學 鍼灸學敎室 : 上揭書, p. 1123.
“綜合手技法은 14種으로 燒山火, 透天涼, 陰中隱陽, 陽中隱陰, 子午搗臼, 進氣法, 青龍擺尾法, 白虎搖頭法, 蒼龜探穴法, 赤鳳迎源法, 留氣法, 抽氣法, 抽添之訣, 龍虎交戰法등이 그것이다.”
楊繼洲 : 上揭書, pp. 75-79.
85. 金慶鎬, 尹鍾和 : 手技補瀉法 中 分層區分補瀉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서울, 大韓鍼灸學會誌 1994: 11(1) p. 373.
86. 滑伯仁外 1人 : 難經本義·難經古義, 台北, 泰華堂出版社, 民國68年(1979), p. 35.
“… 五臟六腑皆受於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行脈中, 衛行脈外.”
87. 滑伯仁外 1人 : 上揭書, p. 72.
“…當補之時, 從衛取氣, 當瀉之時, 從營置氣…”

88. 楊繼洲 : 上揭書, p. 178.
“衛氣者, 浮氣也, 專主於表. 榮氣者 精氣也, 專主於里 … 如是則榮衛中外之主, 不亦大乎, 安得不求其補瀉焉.”
89. 金慶鎬, 尹鍾和 : 上揭書, p. 376.
90. 徐鳳 撰 : 鍼灸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25.
‘三曰 陽中之陰, 先寒後熱, 淺而深, 以九六之法, 則先補後瀉也. 四曰 陰中之陽, 先熱後寒, 深而淺, 以六九之方, 則先瀉後補也.’
91. 楊繼洲 : 上揭書, p. 77.
‘三曰 陽中隱陰, 先寒後熱, 淺而深, 以九六之法, 則先補後瀉也. 四曰 陰中隱陽, 先熱後寒, 深而淺, 以六九之方, 則先瀉後補也.’
92. 楊繼洲 : 上揭書, p. 126.
‘陽中隱陰之法焉. … 先入五分, … 更進鍼令入一寸, … 陰中隱陽之法焉. … 先入一寸, … 漸入五分.’
93. 楊繼洲 : 上揭書, p. 162.

衛部, 營部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그 部位를 整理 記述한 것이라 하겠다.

IV. 結 論

《鍼灸大成》의 引用句 分析을 통해 《衛生鍼灸玄機秘要》와의 聯關關係를 살펴보고, 《鍼灸大成》의 <策>篇의 分析을 통하여, 楊繼洲의 醫學思想을 研究해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게 되었다.

1. 《鍼灸大成》의 底本으로 判斷되어지는 《衛生鍼灸玄機秘要》의 構成은 本書가 佚失된 關係로 精確한 構成을 알 수 없다. 그러나, 明代 당시의 鍼灸醫學系에 특히 徐鳳, 高武등의 書籍에서 볼 수 있듯이 著者의 純粹 著作이 아니라도 選集 編撰하는 綜合 鍼灸醫書가 遊行했는데, 《衛生鍼灸玄機秘要》도 이런 形態를 띤 것으로 思料된다.

2. 《鍼灸大成》은 1601년 趙文炳이 楊繼洲의 《衛生鍼灸玄機秘要》를 基本으로 歷代醫書를 모아 刊行한 것으로 靳賢이 校正 選集한 書籍이다. 《鍼灸大成》과 《衛生鍼灸玄機秘要》의 聯關關係를 引用句 分析을 통해 살펴본 바, 《衛生鍼灸玄機秘要》에서 引用한 것으로 疑心되는 部分이 77.4%였으며, 楊繼洲家의 純粹著作 部分도 11.5% 정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록 楊繼洲가 《鍼灸大成》을 直接 選集하지는 않았지만, 後代까지 그를 著者로 알게된 斷礎가 되었다.

3. <諸家得失策>에서 疾病의 浸透部位를 腠理, 血脈 및 腸胃등으로 區分하고, 疾病이 腸胃에 있는 것은 藥餌로, 血脈에 있는 것은 鍼刺로, 腠理에 있는 것은 熨熨로 治療하므로 鍼, 灸 및 藥 하나라도 輕視하면 안 된다는 綜合的인 治療施術을 主張하였고, 《內經》, 《難經》을 重視하는 復古主義의 傾向을 띠었다.

4. <頭不多灸策>의 頭部禁灸穴에 대한 理論의 根據는 《備急千金要方》<灸例>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鍼灸大成》中 禁灸穴에는 頭維, 下關, 承光, 腦戶... 등 頭部の 穴이 全身 禁灸穴의 약 41%였으며, 淵液, 委中, 天膈... 등 薄弱한 皮膚의 穴들이 多少 있었다.

5. <穴有奇正策>과 《鍼灸大成》중 奇穴 關聯篇인 <經外奇穴>篇의 內容은 《奇效良方》을 根幹으로 하여 몇몇 經驗 奇穴을 더 追加하여 構成한 것이다.

6. <鍼有深淺策>에서 陽中隱陰法과 陰中隱陽法의 深淺은 各各 一寸과 五分으로 提示하고 있는데, 이는 歷代로 抽象的으로만 表現되어진 衛部와 營部를 각각 五分과 一寸으로 具體化한 것이라 하겠다.

< 參考文獻 >

1. 楊繼洲：鍼灸大成, 서울, 大成文化社 1990.
2. 楊繼洲：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3. 楊繼洲：明代訂正鍼灸大成, 台北, 黎明文化事業股分有限公司, 1952 (民國 63年).
4.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校釋：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5. 林昭庚 主編：新鍼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6. 李 鼎 主編：鍼灸學釋難,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
7. 紀曉平, 鄧樹義 編著：明代鍼灸學家楊繼洲,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0.
8. 張吉 著：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1994.
9. 洪元植 著：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0.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 教室：鍼灸學, 서울, 集文堂, 1991.

11. 郭霽春 編著：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9.
12.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校釋：黃帝內經素問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13. 方賢 著：奇效良方，홍콩，商務印書館，1977.
14. 王德深 主編：中國鍼灸穴位通鑒，青島，青島出版社，1994.
15. 滑伯仁外 1人：難經本義·難經古義，台北，泰華堂出版社，民國 68年.
16. 金赫濟 校閱：原本大學·中庸，서울，明文堂，1987.
17. 金赫濟 校閱：原本周易，서울，明文堂，1987.
18. 金赫濟 校閱：原本孟子，서울，明文堂，1987.
19. 劉明鍾 著：宋明哲學，서울，螢雪出版社，1987.
20. 孫思邈 著：備急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9.
21. 金慶鎬，尹鐘和：手技補瀉法 中 分層區分補瀉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서울，大韓鍼灸學會誌 1994: 11(1)
22. 高武 著：鍼灸聚英，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61.
23. 高武 著：鍼灸節要，上海，上海書店，1986.
24. 이광을 著：朱子哲學研究，대구，중문출판사，1995.
25. 欽定四庫全書 醫家類(1, 3, 4, 5)：《黃帝內經素問》，《靈樞經》，《鍼灸甲乙經》，《備急千金要方》，《外臺秘要》，서울，大星文化社，1980
26. 徐鳳 撰：鍼灸大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
27. 손광락：經脈體系的 形成과 發展에 관한 文獻的 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1998.
28. 王雪苔 總主編：中國鍼灸薈萃，湖南省，湖南科學技術出版社，1993.
29. 王深德 總主編：中國鍼灸文獻提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6.